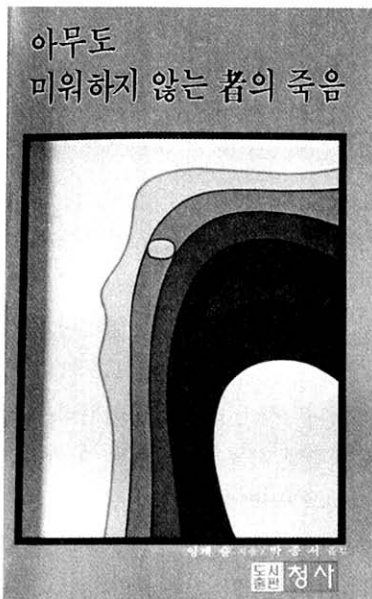


야만적 광기 속에 피어난 흰 장미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민** 현대학으로 길을 나섰다. 흰 장미의 신화를 찾아. 고풍스런 붉은 벽돌의 건물들. 학생을 붙들고, 흰 장미의 전사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의 죽음, 그 기억의 장소를 묻는다. 한 학생이 저기를 가리킨다. 화단 앞. 그러나

교정을 두세 번 들락거리려도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다른 학생에게 묻는다. 따라오라고, 작은 기념관도 있으나 대부분 기억하지 못 한다고 했다. 되돌아 나온 길, 어이 없게도 입구의 땅바닥에 그들이 있었다.”

내 글이 아니다. 백기완 선생의 『자주 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의 수신인 ‘담’이 쓴 유럽 기행문(『다하우의 민들레』, 『황해문화』, 2004년 가을호) 중 한 토막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의 주인공들을 기리는 동판 부조를 그렇게 발견했다는 것.

“기억하는 학생들은 밟고 지나가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해도 신경 쓰지 않지요. 그게 민현대학과 우리의 오늘입니다.”

‘담’을 안내해 준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는데, ‘담’의 눈은 그 학생의 손에 들려 있는 두툼한 영어책도 놓치지 않았다.

역사란 대체 무엇인가.

대학 신입생 시절 필독서처럼 되어 있던 E. H. 카아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정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정의가 오늘 의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공허하게만 들린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다시 펼치는 내 심정 역시 그러하다. 그 시절, 우리는 이 책을 ‘아미자’라고 줄여 불렀다. 먼저 읽은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기억 속에는 한 대목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누군가가 울부짖는다.

“난 억울해요.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함께 끌려가는 주인공이 말한다.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다.”

아아, 얼마나 섬뜩한 말인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것 없다. 네가, 바로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 했다. --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오싹하던 기분을 지금도 충분히 재생해낼 수 있다. 전두환은 광주를 처참하게 진압했다. 무수한 생명을 진압했고 우리의 의식을 진압했다. 아무도 말을 해서 안 된다. 아무도 기억을 해서 안 된다. 그런데, 그런데 말을 하라고 한다! 기억을 하라고 한다! 네가,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네가!

어찌할까 문간에는 파수병이 있으니/ 어찌할까 우리는 갇혀 있으니/ 어찌할까 거리는 차단되었으니/ 어찌할까 도시는 쫓기고 있으니/ 어찌할까 도시는 굶주리고 있으니/ 어찌할까 우리는 무기를 빼앗겼으니/ 어찌할까 밤은 다가오고 있으니/ 어찌할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니(책 뒤표지에 실린 시)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미자' 를 아무리 거듭 읽어도 나는 그 장면을 발견하지 못 했다. 어쩌면 그건 다른 책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미자' 는 바로 그 이미지로 인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어찌랴.

1942년 독일 뮌헨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이른바 '백장미단 사건' 은 히틀러의 광기에 속수무책으로 있던 독일 지식인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를 강타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빈곤, 그로 인한 깊은 좌절감은 결국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의 환상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상에 너무나 쉽게 도취되고 만다. '아미자' 의 한 주인공인 소년 한스 솔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당연히 히틀러 유겐트(소년단)에 가입했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매일같이 조국이며 학교, 사회, 국민공동체,

조국에 등등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존경심을 품었으며, 학교에서나 길가에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틈에 끼어 열성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소년은 이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존경심이었는지 몸으로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애독하던 슈테판 츠바이크의 시집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그린 사자 문양의 특별한 중대기를 빼앗겼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히틀러는 어린이들을 피리 소리로 꼬여내어 파멸시키는 하멜른의 쥐 물이꾼이라고 말해주곤 했다.

히틀러 유겐트를 빠져나온 한스 솔은 나치 치하에서는 금지된 청년회에 가입한다. 그것은 청년다운 열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 그 자체였다. 그는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 북부 독일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는가 하면, 동료들과 더불어 모닥불 가에 둘러앉아 시를 읊고 인생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시대의 소란으로부터 잠시/ 그대의 눈과 귀를 돌리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기 전엔/ 그대의 힘으로도
이 시대의 소란은/ 치유될 수 없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지극히 '잠시' 였다. 그들은 '시대의 소란' 에 휘말려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뮌헨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한 한스 솔은 동료들과 더불어, 그리고 신학과 철학을 가르친 후버 교수의 지도 아래, 히틀러의 압제에 항거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백장미로부터'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대학과 거리와 정거장과 우편함 등에 뿌렸다. 살벌한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유인물을 만들고 그것을 뿌리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행위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솔 남매 (조피와 한스)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무책임한 정권으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계속 집권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화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남이 시작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들은 네메시스(희랍의 복수의 여신)의 사자를 점점 가까이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헌대학생물학부에 입학한 여동생 조피 솔은 오빠의 비밀 작업을 눈치 채 뒤 안전을 걱정했지만, 결국 동참하는 길을 택한다. 백장미단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독일 곳곳에 같은 이름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나치에 직접 저항하는 지식인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뜻했다.

1943년 2월 18일, 화창한 목요일. 학교에 가서 선언문을 뿌리던 솔 남매는 교문을 봉쇄한 정권의 주구들에

게 붙잡히고 만다. 그리고 불과 나흘 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사건의 파급을 두려워 한 나치의 전격적인 처형이었다.

한스는 법정을 찾아온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하게 살아남아라. 한 치의 타협도 없이.”

그들의 투쟁은 가공할 만큼 거대한 나치즘의 위세에 비하면 그들 스스로 말했듯 지극히 ‘수세적인 저항’이었다. 그러나 그 수세적 저항은 초인적인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었다. 전후 독일에서, 히틀러의 광기가 처참하게 물러간 폐허에서, 독일인들은 과연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만일 솔 남매를 비롯한 백장미단의 저항마저 없었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저항

전두환 정권의 야만적인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저항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진 듯 보인다. 아니, 때로는 조롱을 받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는 말, 믿는다. 현재 우리가 기억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아미자’는 그런 기억, 그런 대화의 충분한 한 흔적이다.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지 못 하게 될 때, 그때에는 인간의 파멸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백장미의 편지’에서)

김남일 (소설가)

- 1957년 경기 수원 출생 ·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단편 「배리」로 등단
- 장편소설 『청년일기』 『국경』 (전 7권), 작품집 『일과 밥과 자유』 『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동화 『떠돌이 꽃의 여행』과 평전 『김성진』을 집필
-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계간 『실천문학』 주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장 역임

역사 다시 읽기

역사는 오늘을 재인식하는 나침반이자 내일을 보는 망원경입니다

이제 교실에서 새롭게 만나십시오.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을!

- 역사 다시 읽기 하나 『4.19 혁명』 · 김정남 지음
- 역사 다시 읽기 둘 『6월 민주항쟁』 · 유시춘 지음
- 역사 다시 읽기 셋 『5.18 민주항쟁』 · 김진경 지음
- 역사 다시 읽기 넷 『부마민주항쟁』 · 김하기 지음

값 3,000원